

대강절 세번째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3RD SUNDAY OF ADVENT

주후 2023년 12월 17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102장 “영원한 문아 열려라” (통일 107)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117번 구주 강림 (3)	다같이
*고백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장 “세번 아멘”(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도 Prayer of Intercession		이성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로마서 (Romans) 12:12-21	조희연 집사
찬 양 Anthem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찬양대
설 교 Sermon	“선으로 악을 이기라” (Overcome Evil with Good)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Song	“주 앞에 앞드려”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통일 353) 1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ng Hymn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통일 396)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성자 예수님께서서는 친히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낮아지기 보다는, 우리 자신을 더 드러내려고 했고,

작은 것에도 우리의 유익을 따지며, 불안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이기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닮은 참된 겸손과 화해로,

어두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참된 기쁨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엡 2:14)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개역개정 롬 12:21)

“Do not be overcome by evil, but overcome evil with good.”

(NIV Romans 12:21)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2/17 (주일)	12/18 (월)	12/19 (화)	12/20 (수)	12/21 (목)	12/22 (금)	12/23 (토)
	대하19	대하21	대하22,23	대하24	대하25	대하26	대하27,28
본문	계8	계9	계10	계11	계12	계13	계14
	슥4	슥5	슥6	슥7	슥8	슥9	슥10
	요7	요8	요9	요10	요11	요12	요13

토/요/ 새/벽/기/도/회 성/탄/전/야/ 촛/불/예/배

토요 새벽기도회 (12/23토 오전6:30)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건지소서”(시120:7)
성탄전야 촛불예배 (12/24주일 오후7:30)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눅126:38)

지난 주일(12/10) 말씀

“생각하라” (롬 12:1-11)

로마서는 크게 1)교리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2)구체적 실천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죄인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를 설명하는 내용이 로마서의 전반부라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받게 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를 말씀하는 내용이 로마서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고 말씀을 시작한 것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 마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쉬는 모든 시간이 다 포함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곧 삶이요,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1)첫째는,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고(3 절), 2)둘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또한) 우리가 서로 지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4-5 절), (마지막) 3)셋째는, 매순간 “사랑으로” 그리고 “악이 아닌 선으로” 바른 결정을 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9 절).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지 머리에만 머무는 관념적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이 함께 움직이는 실천적 신앙으로, “예배와 삶이 하나 되는”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십시다.

설/교/ 메/모